2010 KOIMA 유럽 통상사절단

터키(Turkey) 정보

2010. 2.

한국수입업협회
국 제 통 상 팀

목 차

Ⅰ. 터키 개황 1

Ⅱ. 한-터키 주요이슈 3

Ⅲ. 한-터키 교역현황 4

Ⅳ. 터키 주요 산업현황 6

Ⅴ. 터키 수출입 동향 9

Ⅵ. 터키 FTA 추진현황 11

Ⅶ. 한국기업 투자현황 13

Ⅷ. 터키 비즈니스 Tips 14

터키 개황

가. 일반 사항

국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위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적	783,562㎢(남한의 7.8배)
기후	지중해성기후(해안) 대륙성기후(내륙)
수도	앙카라(Ankara)
인구*	70,586,256명(2007년)
주요도시*	Istanbul(1,257만 명), Ankara(447만 명), Izmir(374만 명), Bursa(244만 명), Adana(201만 명)
민족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소수의 유태인 등
언어	터키어 (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98%, 수니파 다수), 기타(2%, 기독교 및 유대교)
건국(독립)일	1923년 10월 29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국가원수: Abdullah Gul 취임일: 2007. 8월(7년 임기)
	수상: Recep Tayyip Erdogan(실권자) 취임일: 2007년 8월(5년 임기)

자료: 터키통계청, TAIK(Turkish-U.S. Business Council) 등

나. 경제지표

GDP	7,379억 달러(2008년)
실질경제성장률	1.1%(2008년)
1인당 GDP	10,436달러(2008년)
실업률	13.0%(2009년 6월)
물가상승률	7.99%(2009년 8월)
화폐단위	Turkish Lira(TL)
환율	1달러=1.48TL(2009년 9월)
외채	2,653억 달러(2009년 1분기)
외환보유고	1,097억 달러(2009년 상반기)
산업구조	농수산업 및 임업: 11.1%, 제조업: 29.3%, 서비스업: 59.6%
교역규모	(2007년) - 수출: 1,072.72억 달러, 수입: 1,700.63억 달러 - 무역수지 : -627.91억 달러 (2008년) - 수출: 1,320.03억 달러, 수입: 2,018.23억 달러 - 무역수지 : -698.20억 달러 (2009년 1~7월) - 수출 : 567.7억 달러, 수입 : 747.69억 달러 - 무역수지 : -179.99억 달러
교역품	수출: 자동차, 기계류, 철강, 의류
	수입: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계 및 장비, 자동차, 플라스틱류

주: GDP는 current price 기준임.
자료: 터키 중앙은행, 대외 무역청, 통계청

다. 한-터 관계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72.5) 문화협정(74.5)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12) 항공협정(79.10) 이중 과세방지협정(86.3) 투자보장협정(94.6) 섬유협정(97.12) 원자력협력협정(99.6) EDCF 기본협정(03.4 서명, 미발효) 관광협력협정(06.10 서명, 미발효)
교역규모	ㅇ 2007년 - 40억 8,700만 달러(대 터키 수출) - 2억 8,200만 달러(대 터키 수입) / 무역흑자 38억 500만 달러 ㅇ 2008년 - 37억 7,300만 달러(대 터키 수출) - 3억 6,200만 달러(대 터키 수입) / 무역흑자 34억 1,100만 달러 ㅇ 2009년 1~4월 - 7억 8,400만 달러(대 터키 수출) - 9,100만 달러(대 터키 수입) / 무역흑자 6억 9,300만 달러
교역품	수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기자재, 철강판, 합성수지, 기계류
	수입: 의류,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투자교류	ㅇ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 - 2007년:(28건, 1억 3,100만 달러-신고), (56건, 1억 1,100만 달러-투자) - 2008년: (28건, 5,323만 달러-신고), (45건, 6,873만 달러-투자) - 2009년: (12건, 2,501만 달러-신고), (12건, 2,165만 달러-투자)
	ㅇ 터키의 대한 투자: 45건 7,400천 달러(1996~2009년 1사분기-신고)
교민	총 교민 수 약 1,400명(일시 체류자 포함, 2008년 추정)

한-터키 주요 이슈

터키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 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나라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에브렌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주요 인사들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04년 에르도안 총리의 방한에 이은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터키 방문으로 양국 간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터키는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터키정부는 차세대 전차 및 훈련기 도입에 있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국방조달 분야에서도 새롭게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국 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없으나 한국의 대 터키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터키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산업 구조 및 산업 발달 정도에 기인하는 문제로 한국이 수출할 품목은 많은 반면 수입할 품목이 많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globalwindow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한국인 관광객의 터키 방문 증가 및 한국기업들의 대 터키 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인 터키 관광객 숫자는 1999 년 15,000 명 에서 2005 년 91,579 명까지 급증하였으며 2006 년에는 108,100 명, 2007 년에는 135,100 명, 2008 년에는 119,500 명의 관광객이 터키를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 터키 투자의 경우 1987 년부터 2008 년까지 총 162 건에 4 억 3,553 만 달러(신고기준) 수준으로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터키정부측은 최근 한국과 EU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터간 FTA협상을 동시 진행할 것을 제시하는 등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양측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었고, 하반기부터 양국간 FTA협상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한-터키 교역 현황

한국의 대 터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월
수출	2,356	2,782	3,036	4,087	3,773	1,633
(증가율)	(71.4)	(18.1)	(9.1)	(34.6)	(-7.7)	(-37.7)
수입	104	127	194	282	362	274
(증가율)	(33.2)	(22.5)	(52.5)	(44.9)	(28.5)	(4.7)
무역수지	2,252	2,655	2,841	3,805	3,411	1,359
(증가율)	(73.7)	(17.9)	(7.0)	(33.9)	(-10.4)	(-42.5)

자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대 터키 10 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불, %)

순위	품목명	2008		2009.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77	17.5	232	67.4
2	자동차	410	-39.6	164	-46.1
3	합성수지	310	-2.3	123	-46.7
4	자동차부품	417	44.7	117	-62.7
5	철강판	289	88.3	114	-51.1
6	무선통신기기	195	-55.6	69	-57
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	-77.8	49	-5.4
8	플라스틱 제품	67	3.3	40	-16.3
9	컴퓨터	35	-42.5	38	62.5
10	종이제품	18	-23	35	159.4
	총계	3,773	-7.7	1,633	-37.7

주: 품목은 MTI 3단위 분류

자료: 한국무역통계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한국의 대 터키 10 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8		2009.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0	-	109,030	-
2	자동차부품	19,345	17.6	31,849	115
3	의류	29,913	26.7	15,729	-32.7
4	석유제품	106,438	278,031.40	14,637	-81.5
5	기타비금속광물	15,346	28.1	10,934	25.8
6	기호식품	14,104	-3.4	10,245	5.9
7	무선통신기기	6,254	390.8	5,877	28.2
8	기타정밀화학제품	5,750	32.4	4,248	34.3
9	선재봉강및철근	0	-	3,725	-
10	식물성물질	5,256	2.3	3,553	-6.6
	총계	361,913	28.5	273,944	4.7

주: 품목은 MTI 3단위 분류

자료: 한국무역통계

터키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2005년 23위, 2006년 25위에 이어 2007년에는 26위(금액 기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 터키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9년 8월에는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소를 기록하면서 31위 수출시장으로 순위가 낮아졌다.

한국의 대 터키 수출증가율은 2003년 58.8%, 2004년 71.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나, 2005년 18.1%, 2006년 9.1%로 다소 둔화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다시 34.6%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들어 터키 내수 시장 위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7.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9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50% 에 달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아직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증가율은 2005년 22.5%, 2006년 52.5%에 이어 2007년 4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08년에도 역시 2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그 규모 면에서는 미미한 편이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 터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기자재, 무선통신기기, 전자 부품 및 철강 제품 등 이다. 2007년에는 철강 제품, 섬유 기계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대 터키 수출을 이끌었고 2008년에는 선박기자재, 철도차량 부품 등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대 터키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의 경우 2005년부터 섬유 쿼터가 폐지되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합성수지 및 스판덱스 등 고급 직물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의류, 수산가공품 등이나 그 규모는 수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터키 주요 산업 현황

과거 터키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섬유 의류 산업으로, 세계 4대 섬유 의류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섬유 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 산 섬유 의류 제품이 크게 성장하면서 터키의 주력 산업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 터키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섬유 의류 산업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자동차 및 전자 산업 등이 새롭게 터키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된 터키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산업 등이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터키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섬유 의류 산업 역시 최근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산 제품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터키 내수 시장 침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주요 수출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자동차, 섬유의류,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들어 터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과거 대량 주문을 하던 EU 시장에서 최근 경제악화로 소규모 주문을 통해 물류 창고비를 절감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 자동차 산업

터키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를 비롯, 포드, 르노, 도요타 등 세계적 브랜드들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자동차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에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터키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유럽 시장은 물론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인근 지역으로의 수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터키 내수 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터키 자동차 시장의 특성으로 포드, 현대자동차 등은 최초 투자 이후 시설 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기도 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프랑스의 푸조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한편, 중국의 chery사까지 투자를 검토하는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현재 승용차 2종을 생산 중에 있다. 한편, 터키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입 증가로 우리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08년 4사분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전자 산업

터키 전자 산업은 자동차에 이어 확실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터키 내 소비, 생산, 수출 규모 모두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백색 가전 제품류는 터키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EU 시장에서는 최근 유로화 강세 및 터키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전체 백색 가전 제품 수출의 약 60% 이상이 EU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터키산 백색가전 제품의 강세에 따라 우리 나라 백색 가전 제품의 대 터키 수출은 점차 감소세를 띄고 있으나, 주요 부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터키 백색 가전 제조업체들이 주요 부품 및 소모성 부품 중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 분야도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하반기 이후 큰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최근 터키 정부의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최근 터키 내수시장이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TV 시장의 경우 2009년 1/4분기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 섬유 산업

터키 섬유 산업은 전통적인 천연 섬유의 강세를 바탕으로 발달했다. 현재도 EU 시장에 의류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섬유 강국이다. 2005년 섬유 쿼터 폐지로 의류의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통계상으로는 터키 의류 수출이 2005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단가는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는 터키 의류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리바이스는 터키 내 제품 개발 센터 설립을 결정하기도 하고, 유럽의 유명 브랜드와 터키 의류 업체 및 디자이너 간 교류가 활발해 지는 등 터키 의류 산업 고급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터키의 섬유산업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약 20%를 고용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터키 섬유 산업은 저가의 장점을 내세운 중국 섬유에 맞서 고부가가치화에 승부를 걸고 있으며, 동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터키 섬유 업계는 브랜드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으며, 중고가 의류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고급 직물을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섬유의류산업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큰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터키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2008년 초반부터 내수 소비까지 위축된 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수 소비가 다소 살아남과 동시에 그 동안 중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오던 EU 바이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물류창고비 절약을 위해 공급처를 터키로 바꾸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터키 섬유의류산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품목명(HS code)	2004	2005	2006	2007	2008
양모, 섬수모 등(51)	167,572	180,202	185,033	229,317	232,992
면사, 면직물 등(52)	1,219,991	1,179,569	1,337,714	1,612,909	1,634,379
기타 식물성 직물(54)	796,562	894,103	1,036,787	1,257,634	1,335,378
인조필라멘트(55)	925,406	963,201	1,033,818	1,046,211	1,035,247
인조 스테이플 섬유(57)	517,543	669,989	742,965	992,969	1,158,696
침투, 도포 등(59)	239,060	260,767	284,067	316,357	331,674
니트 의류(61)	6,259,222	6,590,352	6,937,140	8,029,516	7,826,520
니트 외 의류(62)	4,536,829	4,862,376	4,709,132	5,450,642	5,325,578
기타 섬유(63)	1,856,536	1,969,748	1,920,219	2,112,162	2,096,277

자료: 터키통계청

터키 수출입 동향

터키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7 월
수출	73,476	85,535	107,272	132,003	56,770
(증감률)	(15.8)	(16.1)	(25.3)	(23.1)	(-30.2)
수입	116,774	139,576	170,063	201,823	74,769
(증감률)	(19.0)	(17.7)	(21.8)	(18.7)	(-40.9)
무역수지	-43,298	-54,041	-62,791	-69,820	-17,999
(증감률)	(24.9)	(20.5)	(21.1)	(11.2)	(-60.1)

자료: 터키통계청(www.tuik.gov.tr)

터키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이며,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류의 수출 호조로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터키는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매년 더욱 커지고 있어 터키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적자 모두 각각 23%, 18%, 11%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사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출 및 수입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오고 있다.

특히, 2009년 들어서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되어 수출의 경우 -30% 수입의 경우 -40% 등 수출입 모두 '08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는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및 미국 등 시장이 크게 침체함과 동시에 터키내수 역시 위축되면서 수출, 생산, 수입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 1~7월
1	독일	12,952	5,361
2	프랑스	6,618	3,390
3	영국	8,159	3,017
4	이태리	7,819	3,204
5	이라크	3,917	2,954
6	미국	4,300	1,789
7	UAE	7,975	1,741
8	스페인	4,047	1,449
9	이집트	1,426	1,778
10	러시아	6,483	1,679

터키의 10대 수입국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1~7월
1	러시아	31,364	10,381
2	독일	18,687	7,391
3	중국	15,658	6,542
4	이태리	11,012	4,024
5	미국	11,976	4,713
6	프랑스	9,022	3,763
7	스페인	4,548	2,006
8	이란	8,200	1,814
9	영국	5,324	1,798
10	스위스	5,588	962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 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8 년	2009.1~7 월
1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8,327	6,636
2	72	철강	14,946	4,577
3	71	보석 및 귀금속류	5,383	4,569
4	84	보일러, 기계류	10,259	4,525
5	61	의류(편물)	7,827	3,913
6	85	전기기계 및 장비	7,972	3,372
7	73	철강제품	5,742	2,533
8	62	의류(편물제외)	5,327	2,426
9	27	광물성 연료	7,532	1,816
10	39	플라스틱류	3,563	1,682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대외 무역청(www.dtm.gov.tr)

터키의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 분류	품목	2008 년	2009.1~7 월
1	27	광물성 연료	48,281	16,089
2	84	보일러, 기계류 등	22,539	9,374
3	85	전기기계 및 장비	13,892	6,296
4	72	철강	5,359	5,876
5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3,160	4,538
6	39	플라스틱류	9,386	3,597
7	30	의약품	4,361	2,291
8	29	유기화학품	4,421	1,838
9	90	광학제품 및 부품	3,445	1,506
10	48	종이류	2,605	1,189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대외 무역청(www.dtm.gov.tr)

터키 FTA 추진 현황

터키는 198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 자유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시행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 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 제도를 정비, 시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수입 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시행령(The Import Regime Decree)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동구 유럽 및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EU의 공동 무역 정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터키는 EFTA(1992),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2004), 튀니지(2005) 이집트(2005), 알바니아(2006)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요르단, 레바논, 파로 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걸프 협력 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와는 협상을 이제 시작하였고 알제리, 칠레,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MERCOSUR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www.globalwindow.org

또한, 우리 나라와 EU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2008년 초부터 우리 나라와의 FTA 협상을 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2009년 상반기 민간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양국간 본격적인 FTA 협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한국기업 투자현황

양국 간 투자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 터키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ㅇ 한국의 대 터키 투자(1987~2009. 1사분기 누계)
- 신고건수 및 금액(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 총 149건, 4억 5492만 달러
- 투자건수 및 금액(송금건수): 총 212건, 3억 6754만 달러

ㅇ 터키의 대 한국 투자: 총 45건, 740만 달러(신고액 기준, 1996~2009년 1사분기 **누계**)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누계액은 2009년 1사분기 투자신고기준 총 149건, 454,919천 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1건(금액기준: 351,110천 달러)로 전체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투자지역은 대부분 이스탄불, 이즈미트, 부르사 등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마르마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터키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인구 7,000만 명의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EU 시장을 겨냥한 투자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터키는 EU시장에 근접하여 있으면서도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EU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실제로 대 EU 수출이 전체 터키 수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www.globalwindow.org

최근 한국과 터키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수준이 터키기업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터키인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 터키 투자는 당분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터키 업종별 투자현황 (1987~2009. 1사분기 까지 누계)

(단위: 건, 천 불)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총계
신고건수	1	6	111	3	16	1	5	6	149
신고금액	230	29,000	351,110	2,044	70,932	500	550	554	454,919
투자건수	1	9	163	5	19	2	5	8	212
투자금액	217	14,250	292,019	2,044	57,532	500	550	429	367,541

주1: 신고건수에는 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
주2: 투자건수에는 송금건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종업원수	진출시기
CJ TUR YEM SAN. VE TIC. A.S	CJ	제조업	배합사료	단독법인	12	2004
LG Philips Lcd	LG필립스	제조업	LCD 판넬	연락사무소	4	2005
LG Electronics Inc. ISTANBUL Liason office	LG전자	제조업	가전제품	연락사무소	6	1985
LG-Arcelik	LG전자	제조업	에어컨	합작법인	334	2000
LG Chem, Ltd. Istanbul Office	LG화학	제조업	화학제품	연락사무소	4	2005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ISTANBUL OFFICE	대우 인터내셔널	도/소매업	전품목	연락사무소	4	1956
Maysan-Mando	만도	제조업	자동차 부품	합작법인	180	1997
SAM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삼성물산	도/소매업	전자, 철강, 화학	연락사무소	9	1986
Samsung Electronics Istanbul Liaison Office	삼성전자	제조업	전자제품	연락사무소	10	1984
Assan-Hanil	한일이화	제조업	자동차부품	합작법인	304	1996
OCI Corporation Istanbul Office	OCI상사	도/소매업	화학제품	연락사무소	3	1999
CAS Elektronik Sanayii ve Ticaret A.S.	카스	도/소매업	전자저울	단독법인	28	1992
Kimsoy	㈜경인양행	제조업	염료	합작법인	38	1997
Hankook TIRE LIAISON OFFICE IN ISTANBUL	한국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연락사무소	4	2004
HYUNDAIASSAN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현대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합작법인	1616	1995
HYUNDAI CORPORATION ISTANBUL OFFICE	현대종합상사	도/소매업	조선, 플랜트, 기계 등	연락사무소	5	1986
HYOSUNG CORPORATION ISTANBUL OFFICE	효성	도/소매업	섬유	연락사무소	6	1991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제조업	섬유	단독법인	232	2007
KOREANAIR ISTANBUL REGIONAL OFFICE	대한항공	서비스업	항공 서비스	연락사무소	4	2006
HYUNDAI HEAVY INDUSTRIES ISTANBUL LIAISON OFFICE	현대중공업	제조업	건설기계	연락사무소	3	2006
KUMHO TIRE LIAISON OFFICE IN ISTANBUL	금호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연락사무소	2	2006
ILJIN ELECTRONIC LTD	일진전기	제조업	에어컨 부품	단독법인	65	2005
KT&G Tutun Mamulleri Sanay ve Ticaret A.S	KT&G	제조업	담배	단독법인	21	2006
Dai Yang Metal Co. Ltd	대양금속	제조업	스테인레스강판	단독법인	10	2007
HOWON SANAYI VE TICARET A.S.	호원	제조업	자동차 차체	단독법인	-	2007
TEKNO TAKIM MAKINA VE KESICI TAKIM SANAYI TIC.A.S.	YG-1	제조업	절삭공구, TOOL HOLDER	합작법인	-	2007

자료: KBC 자체 조사

www.globalwindow.org

터키 비즈니스 Tips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방문 시 복장

소규모 바이어들은 보통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복을 입고 만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양복이 아니어도 단정한 차림새는 필수적이다.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으니 한국 업체 직원들도 깔끔한 양복을 갖추는 것이 좋다.

2) 인사

터키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주로 악수를 나눈다. 친근한 사이라면 동성 간에도 서로 포옹하고 양 볼에 입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악수만으로 무난하다. 간단한 터키어 인사를 하는 것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인 인사: 멜하바
- 아침 인사: 규나이든
- 오후 인사: 이이귄레르
- 저녁 인사: 이이악샴라르
- 밤늦게 헤어질 때: 이이게젤레르

3) 선물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 부담이 되는 선물보다는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바이어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좋다. 주로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열쇠고리나 휴대전화 액정클리너 등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의 물품들을 준비하여 대면하는 자리에서건넨다면 상담을 훨씬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4) 약속

터키에서는 방문 전에 예약이 필수이며, 바이어들이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최소 방문 3-4일 전에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방문 약속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 주일 전에는 약속을 확정하도록 한다.

5) 식사

터키에서의 식사 초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위해 좋다.

나. 문화적 금기 사항

터키인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적인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요리 등은 권하지 말고 동석하는 한국인들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터키인들은 과거 오스만 제국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국민이다. 따라서 터키와 터키 사회를 업신여기는 말은 바이어의 반감을 사고 상담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대면 상담 중요

터키는 바이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 서비스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신뢰도는 대부분 상담하는 한국 업체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팩스나 E-메일보다는 바이어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는 것이 바이어 정보 파악 및 거래 성사에 유리하다.

2) 상담 언어

터키 바이어들의 경우 사람에 따라 영어 구사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 담당자일 경우 영어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방문 약속을 잡을 때 영어 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영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하는 한국 업체가 통역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외상 거래는 위험

첫 거래에서부터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외상 거래는 양측 간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